KOCHAM 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5년 3월 6일(금)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1) 1월 무역적자 418억달러, 적자폭 축소

2) 2월 실업률 7년만에 최저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1) 국제 유가, 리비아 우려 불구 1.5% 하락

2) 국제 금값, 달러 강세 영향에 1200 달러선 아래로 하락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1) 미 항공업계, 정부에 중동 항공사 보조금 중재 요청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1) 1월 무역적자 418억달러, 적자폭 축소

o 지난 6일, 미 상무부는 1월 무역적자가 418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힘

- 전월 456억달러 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축소됨

2) 2월 실업률 7년만에 최저

o 지난 6일 미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자수가 29만5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힘

- 이는 전월의 25만7000명과 시장 예상치 23만5000명을 모두 크게 상회

o 또한, 2월 실업률은 5.5%로 예상보다 낮은 수치로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

- 이는 경기회복, 실적 개선 등으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빠르게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

o 한편, 웰스파고 증권의 샘 블라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고용시장이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들의 채용 확대에 따라 임금 상승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1) 국제유가, 리비아 우려 불구 1.5% 하락

o 지난 5일 뉴욕상업거래소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(WTI)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77센트(1.5%) 하락한 50.76달러를 기록

- 이날 국제유가는 2달러 넘게 등락을 거듭, 오전에는 리비아의 원유 생산차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며 유가가 52.4달러까지 오르기도 함

o 또한, 리비아 국가석유공사는 전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유전 11곳의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발표

o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점점 하락세로 돌입

- 유럽중앙은행(ECB)의 양적 완화 일정이 확정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달러 강세도 영향을 미침

2) 국제금값, 달러 강세 영향에 1200 달러선 아래로 하락

o 지난 5일 뉴욕 상품거래소 4월 인도분 국제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4.7달러(0.4%) 하락한 1196.20달러를 기록

- 이는 유럽의 양적 완화를 앞두고 달러화가 계속 강세를 나타낸 때문으로 풀이, 유로/달러 환율은 전날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

o 한편, 유럽중앙은행(ECB)은 오는 9일부터 월 600억유로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하기로 함

-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이날 정례 통화정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오는 9일부터 2016년 9월까지 월 600억유로 규모의 자산매입을 실시, 필요시 양적완화를 2016년 9월 이후에도 지속 가능하다고 발표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1) 미 항공업계, 연방 정부에 중동 항공사 보조금 중재 요청

o 지난 5일 파이낸셜타임스(FT) 보도에 따르면 아메리칸항공, 델타항공, 유나이티드항공 등 3개 미국 항공사는 고속 성장을 보이는 에미레이트항공, 에티하드항공, 카타르항공 등 중동 국영 항공사들이 지난 10년간(2004-2014년) 420억달러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성장해왔다며 미 연방 정부에 중재 요청

- 이로 인해 중동 항공사들이 장거리 노선 확대에 적극적로 나서게 되며 그 타격을 미국, 아시아, 유럽 항공사들이 받고 있으며 이는 항공자유화협정 조항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

o 또한, 미 항공사들은 더 이상의 불공정한 경쟁을 막히 위해 미 정부가 카타르, 아랍에미리트(UAE) 정부와 항공사 보조금 문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

-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자국 항공사들의 요청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

o 한편, 중동 항공사들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, 지난달 이 주장이 처음 제기됐을 때 에미레이트항공과 에티하드항공은 보조금을 받은 바 없다고 반박함